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0월 20일 (제102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행함

봉해놓은 편지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보이지 않는다. 지갑 속의 돈은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없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창고 속에 쌓아두어 곰팡이 슨 물건이나 진배없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탄식했다.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약 2:20).

그렇다. 편지봉투를 뜯어야 편지글이 보이고, 쓸 때 써야 돈의 가치가 있고, 지식도 활용해야 삶의 지렛대가 되고 빛을 발한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천국과 인연이 멀다.

알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보다 죄가 크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고 말했다. ‘말과 혀로’ 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알면 진실함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나는 요새 하루 만보를 걸으려고 노력 중이다. 나는 늘 주님께 40대 기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 건강해지려면 행동하라, 운동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 만보걷기에 돌입했더니 요즘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알면 행동해야 한다. 밤새 기와집 백 채 짓지 말고 나가서 못 하나라도 두드려 박아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 알면 먼저 웃는 낮으로 인사하고, 좋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지만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에 그렇다. 불쌍한 자가 있으면 커피 값 아껴서 도와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으니 감기 걸린 아들의 머리에, 우울해하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라. 그것이 산 지식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자고로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고, 서말의 구슬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든지 팔찌가 되는 법,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다

지난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광장. 이 일시와 장소는 반드시 마침표가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온 집회들도 많지만, 이날처럼 깊은 시사를 던지는 집회는 없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이번 성회까지 10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왔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으며 움츠러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광장으로 나가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했다. 세상이 뭐라하고 기성 교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비록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평화를 향

권력자를 향한 외침이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의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장면이 있다. 10월 1일 그 장소에서, 목사님의 지휘 아래 공중권세를 잡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낸 역사는 반드시 사도행전의 역사에 서울광장대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을 향해 목사님은 현 국내 및 국제정세의 난맥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진단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진멸한 그 장면은 이미 영상으로도 남아있지만, 반드시 하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단과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하늘은 구름기둥으로 가려졌고, 남쪽에서 올라오던 태풍과 비바람은 잠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더 보여줄 것이 없을 만큼 기사와 표적으로 응답해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해졌다. 비록 지극히 작은 교단이지만, 악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향한 기대하시는 바는 분명하다. 목사님을 따라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한국 교계를 이끌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며 교회 본연의



서울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선포한 제10차 기도성회

한 한반도 통일의 시계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은 광화문광장과 더불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 수많은 직접 민주적 대의가 분출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분출되는 갈등의 장소이다. 신분이나 방송의 편지들을 솔하게 장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대결과 갈등의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 평화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그 대결과 갈등의 장소에 들어가 세 차례(2014,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화협력의 구도를 외치지 않았던가. 세상 그 어떤

나라에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그날 그 장소에 함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보상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 함께 40일 작정기도에 참여했고, 함께 성회를 준비했으며, 목사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듯,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을 기대해도 좋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엄지척하며 박수를 쳐주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된 메시지와 자세로 이 일을 이루어낸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된다 되었으며, 우리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 남북 평화통일의 역사에 기도의 불꽃불이 되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 세대에 정말 꿈꾸는 듯한 평화통일의 역사,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교단 교회로 사용하시려는 뜻 말이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명령과 선포에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며 오늘까지 천국을 향하여 잘 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목사님을 따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락과 상급을 누리는 성도, 세상과 구분된 천국시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의 바람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이라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2:23~25)



인생의 마스터키는 기도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 키’란 하나의 특별한 열쇠로 전체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열쇠를 말합니다. 주로 호텔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그 많은 방의 열쇠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키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각 방을 청소합니다.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다 열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이 마스터키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해결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해놓은 말씀도 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병을 달고 살고, 왜 가난하고, 왜 지혜가 없고,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걸까요? 이는 마스터키를 잃어버렸거나 방치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입니다”(약4:2).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약5:13).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약5:14).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 지혜가 부족합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시험에 들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눅22:40). 나를 못살게 구는 원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 가뭄이 왔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하고요, 잘못이 없는데 욕에 갇혀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도에 있고, 개인의 생사화복이 기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르디빔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사업의 성패도, 인생 전반의 성패도 다 기도

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

정 이

그다지

좋지 않습

니다. 시끄럽습

니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이 우리를 몸살 나게 하

고, 화나게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룻밤 사이에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7:14).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고,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인지라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입니다(요삼1:2).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

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럼 다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 삶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삼상12:23).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살인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기

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

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

십 니

다. “여

호와를 배

반하고 쫓지 아

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습1:6). 죄의 삯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왕의 칙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지셨고, 그런 다니엘을 높이 세워 주시고 애굽 왕 바로 다음의 자리인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총리직을 주

신 것입니다. 기도를 묵숨과 바꾼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묵회 35년을 오직 기도로 왔습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성대가 과열 되도록 부르짖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셨고, 제게 능력을 더하셨으며, 핍박과 모함 중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사랑이 넘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장래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열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속도 통달하게 하십니다(고전2:10).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사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91:15).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마치고

감동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10월 1일,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는 정말 가슴 찡한 집회였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집회는 그동안 어느 집회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더욱 나의 가슴을 울렸다. 태극기가 휘날리며 울려 퍼지는 찬양, 모든 순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잔잔한 마음에서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뒤흔든 감동의 집회였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써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내 마음에 잔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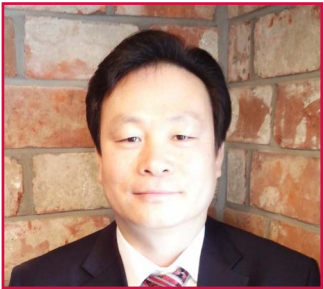
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저곳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뛰어다니 다시피 전도하며 다니신 전도사, 조장, 구역장, 집사님들, 4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어느 권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걸음도 잘 걷지 못하시면서 기도회에 나오시길래, "권사님 힘 안 드세요?" 하니 "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는데 기도만이라도 해야제." 하시는 그 말씀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또 청년들은 울동을 준비하면서 낮에는 직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울동 연습을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연습하는 곳에 가면 아이들이 "목사님, 몸살감기에 걸렸어요. 기도해주세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내 마음이 울컥했다.

어떤 아이는 1일이 중간고사라 도저히 제 시간에 시청 앞에 올 수 없어서 교장 선생님께 '먼저 시험 보고 가면 안 됩니까?'라고 강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엄마와 기도하다 퀵서비스(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인천에서 시청 앞까지 시간 맞추어 온 아이도 있었고, 올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두 자매가 집회 전날 마지막 울동 연습을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고로 손을 다치는 바람에 수술하게 되어 아이들은 엄마 옆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엄마는 두 자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너희가 이번 집회에 이삭을 드리는 시간이다. 엄마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연습하여 내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였고, 그 두 자매는 눈물을 적시며 '아멘'으로 순종하여 엄마 집사님도 기쁨으

로 아이들을 보냈던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다.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에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비록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최선을 다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도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중심교단에는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번 집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나라에 평화가 깃들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반드시 세계 제일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천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

제주도도 대한민국입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아름다운 섬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멀리 있는 제주도라고 안전한 것 같습니까?'라는 이 메시지는 제주에 있는 저와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도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이기에 방관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작정기도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 태풍이 제주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밤에 요란한 번개와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또 집회가 끝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단과 총회장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했기에 분명히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작정기도한 대로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고 집회하기에 너무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풍도 비도 바람도 접근하지 못한 은혜로운 기도성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나라에 평화통일과 안녕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교

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슴 벅찬 집회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회장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한라산에서 꽃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날까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주예수중심교회 김종춘 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제 꿈은 문구 회사 디자이너였지만, 모든 회사들이 경력직만 뽑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현수막을 디자인하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팬시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원하던 팬시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해서 2004년, 4부 성가대에 봉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획실 신영심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성가대 연주회 디자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디자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왜 현수막 회사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잠시나마 현수막 디자인과 제작에 동참케 하심으로 교회에서 쓸 수 있게 미리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고 디자인이 보기엔 단순해보이지만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필요하고, 한 가지 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시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수정하기를 반복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작업이 결국 완성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디자인 시안은 집회 날짜보다 늦어도 한 달 전에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작업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밤에는 교회 일을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 하루 20시간 이상 작업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할 때나 개인 전시 일정이 겹쳤을 때는 교회 일이 버겁고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걸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일, 이 시간이 외롭고 힘들다고 말하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는 말씀을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새벽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새벽까지 저와 함께 SNS로 일하셨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퇴근 후에 교회 일을 하다 보니 늦은 시간에 디자인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정도면 됐지'가 없으신 완벽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하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할 때가 있어서 어떨 때는 새벽 3시에도 목사님께 디자인 컨펌을 받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완료되고 기획실에 보낸 후에도 티셔츠가 잘 나올지, 현수막이 잘 나올지, 오타는 없을지, 컬러는 잘 나올지 집회 당일까지도 긴장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김일성 광장(평화의 광장)에서 기도성회를 하신다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작품을 통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크리스천에게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 비크리스천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작가 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취업률이 좋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취업을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국내외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기독교 작품 또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작품 활동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중심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때론 거절도 당하고, 글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지만 굳건하게 예수중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디자이너 신은유

:: 에덴으로 귀환 ::

:: 빛이 되리라 ::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작정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아침 예배 대신 1시간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홀로 기도하시거나 종종 금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족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최근 시작한 사업은 그 규모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기도의 그릇이 크니 온 가족이 함께 채워야 한다’고 하시며 작정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평소에 아침저녁으로 기도하시던 것을 두 배로 늘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4시, 아침 7시 20분, 저녁 6시, 밤 9시, 하루 동안 총 네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작정기도 기간에는 조금 일찍 퇴근하여 저녁에도 1시간 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기도가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아침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고, 회사에 큰일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그때만 잠깐 부르짖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문

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외치고 그때마다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한 반복의 기도를 하시고 결국엔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며 ‘나도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사업에 크게 성공하겠구나’,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2주일 작정기도 이후로 예배는 기도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아버지는 작정기도를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 우리들이 지쳐서 안 할까 봐 우선 2주간으로 정해놓으시고 작정기도가 끝난 후로는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며 오전예배에 30분 기도하시고, 저녁 6시만 되면 여전히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저도 일찍 끝나는 날에는 아버지의 기도에 동참하고, 우리 온 식구들은 주말 아침과 저녁에도 어김없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과 계획으로만 기도하였는데, 작정기도로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제 삶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고, 사업의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주문들이 밀려닥치기 시작했고, 눈코 뜰 새 없

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더욱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물리는 날에는 기도를 피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의욕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고,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만이 살길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성공의 유일한 열쇠임을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고, 큰 집회를 준비하실 때엔 7~8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양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기도가 성공의 유일한 열쇠라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될 것이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김은유 집사**

Good News

‘오지 체험 트레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 체험 트레킹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우리 인생과 가장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나침반과 지도만 가지고 간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가이드와 동행한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 나서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생복

락의 천국과 꺼지지 않는 불못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며 달려가지만 지도에도 없는 길, 고장 난 나침반을 들고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상화평 목사**

:: 교단소식 ::

지금은 은혜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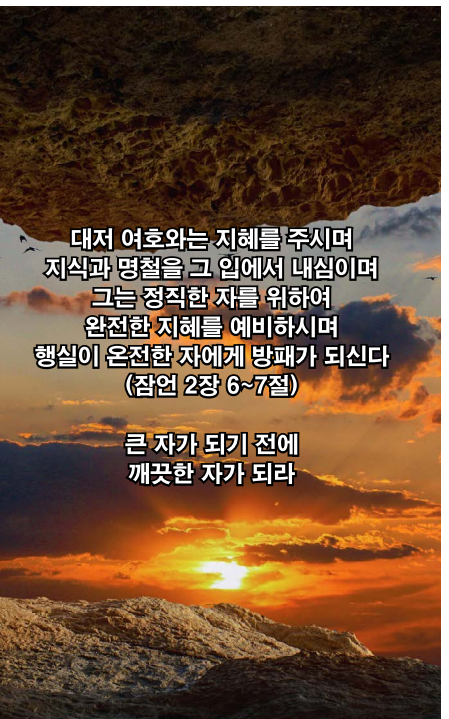
시청집회가 끝난 지난 10월 8일 JC아카데미가 2019년 후반 학기를 개강했다. 시청집회를 위해 기도예배에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들었다.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행6:4)하려는 예수중심교단 미래 초석들의 눈망울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했다. 이번 학기 JC아카데미에서는 지난 학기에 이어 고린도후서 강해가 이어졌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교회는 에베소교회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오랜 기간 머문 교회이다. 감사이신 이시대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했던 충고 중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교인들이 은혜를 헛되지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말, 곧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것이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목사님께서 성경 역사(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등)의 일부분, 과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흥하던 시절, 1920년 평양 대부흥운

동도 은혜의 때였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악의 영을 쫓는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성령의 때’라고 말씀해주셨다. 또,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우리 예수중심교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의 때, 은혜의 때에 역사하는 순간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물 오를 때 고기를 잡으라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말씀,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맞춰 우리 예수중심교단 젊은이들이 매주 화요일 8시 반, JC아카데미(9호선 구반포역 엘루체 컨벤션홀)로 모일 때이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청소로 시작되는 습관

‘10초 아침 청소 습관’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매일 아침 청소를 함으로써 부지런하고 깨끗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라고 전한다. 습관 카운슬러로서 저자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소라고 한다. 대부분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일을 뒤로 미루고, 시간을 안 지키고, 항상 피곤해하며,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있는 반면, 항상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바로 행동에 옮기고,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하고, 모르는 것은 바로 알아보는 등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조언에 따라 우리가 먼저 시작해볼 것은 매일 아침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움직이는 동선 가운데 있는 쓰레기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것이다. 아침마다 작은 청소의 습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책상이나 식탁 등에 있는 불필요한 것은 수시로 버리거나 수납시켜서 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거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청소의 습관이 쌓이면, 점차 집안이 정돈되고 깨끗해지며 기분이 상쾌해지고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나 활기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차츰 나쁜 습관보다 여러 좋은 습관이 자리 잡는 선순환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된다. 성경에서 귀신은 더럽고 악한 존재이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수차례 나온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은 더러워지고, 이 더러운 습관은 우리 몸에 차츰 배게 된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늘 쫓아내듯이 우리 삶의 더러운 습관 역시 쫓아내어 버리자. 매일 아침 청소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는 우리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대저 여호와와 그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잠언 2장 6~7절)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